

KTTU Report

2012년 정세전망

2012. 2. 14



KT노동조합 정책실

<http://kttu.or.kr>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전화: 031-727-2830 ■ 팩스: 031-727-2815

1. 2012 국내 노사관계와 통신업계 전망

1) 노사관계: “선거 정국 탓에 전년 보다 불안한 행보”

- (1)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의 연착륙
- (2) 임단협 갈등
- (3)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도 변수로 작용 예상
- (4) 정부의 근로 개선 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

2) 업계 전망 “요금 인하 압력으로 레드오션 위험”

- (1) 국내경제와 주요산업 전망
- (2) 기업경영 전망
- (3) 업계 전망

2. KT 2012 년 경영 방향

1) KT 의 성장 저해 요소들

- (1) 주수입원인 통신요금 인하 압력 현실화.
- (2) 자금 소요에 못 미치는 내부 수익 창출 능력
- (3) 외부 압박 요인 - 특별근로감독과 삼성과의 갈등

2) KT 의 중, 장기 사업방향

- (1) 2012 년에 추진할 일
- (2) 향후 3 년간의 비전

3. 노동계 2012 년 사업방향

- 1) 민주노총 2012 년 총파업 결의
- 2) 한국노총, 현실정치 본격 개입

1. 2012 국내 노사관계와 통신업계 전망

1) 노사관계: “선거 정국 탓에 전년 보다 불안한 행보”

(1)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의 정착률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제도는 당초 우려에 비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세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 되고 있고, 정치권 역시 노조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아직 동 제도들이 정착됐다고 단언할 순 없다. 산업현장에서도 타임오프와 관련한 일부 편법적 합의가 포착되고 있고, 특히 노동계는 2012년 타임오프 협약의 전면 개정 및 복수노조 제도를 활용한 신규노조 조직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에 맞춰 삼성, 포스코 등에 대한 조직화를 이미 예고한 바 있다. 또한 병원, 백화점, 마트 등 유통업, 공공부문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조직화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한편, 기존 유노조 사업장에 대한 복수노조 설립 시도를 올해 일단협 시기를 전후하여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 등 경제적 변수로 인해 구조조정, 임금동결 등이 필요한 기업, 노조 집행부 선거가 있는 기업 등이 조직화의 타겟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일단협 갈등

노동계의 새로운 투쟁 형태 대두와 고용중심의 이슈 형성으로 2012년 일단협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노사분규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정부의 불법에 대한 엄정대처와 투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 기업의 선진화된 인사관리 시스템 등의 원인이 있었다. 노동계는 이러한 투쟁 동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해 조직형태를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화물, 덤프 등의 특수형태종사자 조직화 등을 통해 새로운 투쟁 동력을 조성하는 한편, 파업이라는 전통적인 투쟁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투쟁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소위 ‘희망버스’ 형태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투쟁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2012년 이후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파업형태가 아닌 ‘길거리 집회 형태의 투쟁’을 대안적 투쟁으로 상정하고 2012년부터 장기분규사업장, 최저임금관련 사업장, 하도급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희망버스식의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가장 큰 이슈로 '임금인상'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가운데 기업의 임금안정 필요성과 노동계 임금인상 요구 간 대립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2년 일단협의 핵심이슈는 고용문제와 임금 문제가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노동계의 ‘고용안정’ 요구와 기업들의 ‘성과 연동 임금제 도입’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3)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

노동계는 현장 투쟁력 약화 현상을 정치활동을 통해 만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정치권 역시 적극적인 친노동계 행보를 보임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이 총선, 대선을 의식하여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특수형태종사자 관련 공약 발표 및 법 개정 시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 임단협 교섭에서도 동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우려도 있다. 지난해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에서 나타난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정치권 개입이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더 심해지고, 한국노총의 민주통합당 참여에 따른 노동계 출신 인사의 국회 진출 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경총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에선 이번 총선에서 한국노총 출신 20명이 공천받는 걸로 돼 있어 국회에 진출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타임오프) 자율화 등 노조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2012년 여름에 대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연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4) 정부의 근로 개선 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장시간 근로 개선 추진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보다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서 외국에 비해 일을 많이 하면서도 생산성은 낮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면 노동 강도가 강화되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와 재계는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노동계는 ‘원칙적으로 환영’ 하지만 동시에 우려의 뜻도 나타냈다. 근로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질급여가 줄어드는 건 걱정이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일은 장시간 노동관행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조치” 라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근로조건 저하 문제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고스란히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산업계에 휴일근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휴일근로를 하는 인력만큼 채용을 더 해야 한다. 근로자를 추가로 뽑았다가 경기가 더 악화되면 추가 고용한 정규직은 기업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 재계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현행 12개 업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특례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금융보험업, 운수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특례업종 종사 근로자는 40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8%에 육박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과 함께 업체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실태 점검도 이어진다. 장시간 근로하는 100인 이상 사업체는 연중 상시로 감독하고,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높은 1차 금속 제조업과 자동차 1차 부품협력업체 등은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발생하는 등 경제의 고용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무원 보수는 지난 해 대비 3.5% 인상토록 결정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3.5% 인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반응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지난해 일반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되레 3.5% 줄어든 것으로 나온 마당에 공무원들의 임금을 올린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 업계 전망 “요금 인하 압력으로 레드오션 위험”

(1) 국내경제와 주요산업 전망

국내 경제는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와 금융불안·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2011년 3.9%, 2012년 3.8%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2011년 4/4 분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회복을 이끌었던 제조업은 대외 수출 둔화 및 국내 소비 위축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경기는 하반기 소폭 반등하겠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경기순환상의 반등에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금융불안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2011년에 이어 한자리 수 증가에 그치며, 건설투자는 공공지출 감소로 부진이 지속될 것이다. 자동차 생산은 미국, 유럽 등 주력 수출시장의 소비심리 악화로 수출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내수 판매도 부진하면서 2011년 수준에서 정체되며, 조선 역시 세계 경기부진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경기 부진이 더욱 악화돼 금년 하반기부터 수주와 건조량 모두 전년대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소비 증가율은 가계부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성장에 따른 소득 둔화 및 고용 여건 개선 지연으로 GDP 증가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경기 둔화 등으로 소폭 상승에 그치고, 원/달러 환율은 경상흑자, 달러화 공급 증가 등으로 하락 기조는 유지하나, 간헐적인 금융불안으로 환율 변동성은 높을 전망 (2012년 평균 1,055 원)이다.

(2) 기업경영 전망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본격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2012년은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 기업의 체질변화 노력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과거의 위기가 일시적으로 참고 견디면 극복되는 성격이었다면, 향후에는 불확실성 속에서 저성장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기업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상당한 경험과 대응역량을 축적해왔다. 따라서 2012년의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 대응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저성장시대에 세계 각국 기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흥국 공략을 위해서 보다 세심한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상황에 맞게 현지 소비자 밀착형 기획을 통한 현지화 전략이 추진될 것이다. 선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화할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기술, 프로세스, 유통채널, 특허 등 핵심역량의 조기안정화 노력이 확대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부적 혁신뿐만 아니라 전략적 제휴, M&A 등 외부자원 활용이 가속화 될 것이다. 기업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여성 임원 양성 및 등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등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성관리자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일체감 형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통 활성화의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직 신뢰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업계 전망

MVNO(기존 통신사업자의 일정 주파수 대역을 임대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영업을 본격화하면서 싼 통화료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을 것이다. 결국 2G, 3G, 4G 로 이어지며 요금을 올려왔던 이통사들이 음성통화라는 본원적인 부분에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게다가 2012 년에 예정된 총선, 대선은 이통사들에게 통신료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미 2011 년 KT 가 SK 텔레콤의 무제한 요금제에 맞서 무선랜을 강조한 바 있다. 4 세대 서비스보다 값싼 무선랜 투자를 활성화하면 소비자들이 4 세대보다 빠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전보다 비싼 종량제 요금을 쓰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선통신 시장은 2012 년에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포화상태인 집전화 시장의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이 쉽지 않고, 인터넷 전화 등으로 빠르게 교체되고 있어 쇠퇴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케이블 TV 업계가 MVNO 까지 진출하면서 인터넷전화, 이동통신, 디지털 케이블 방송 등 3 가지를 결합한 서비스로 가입자 모집을 확대하고 있어 기존 유선통신사의 가입자 유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T 를 주축으로 한 IPTV 업계의 기상 전망은 ‘흐림’ 이다. IPTV 업계는 이미 SK 브로드밴드와 LG 유플러스는 IPTV 서비스에 손을 놓은 상황이고 KT 만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KT 의 IPTV 가입자 유치가 유선전화,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TPS 에 크게 힘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케이블 업계의 3 가지 결합 서비스 진출은 IPTV 가입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클라우드서비스는 통신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기업들의 새로운 업무 스타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 포스코를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으며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밖에 다른 대기업들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유선시장 중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다. SK 텔레콤의 경우 하이닉스 인수 후 투자 자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회사 여웃돈을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데다, 2012 년에도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SK 텔레콤 주주들은 회사 이익을 하이닉스에 넘겨줬다고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LG 유플러스의 경우 최근 4 세대 서비스 가입자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2012 년에도 지속될 지가 관심사다.

〈2012 년 통신업계 전망〉

기회요인	위험요인
△ LTE 시장 활성화: ARPU 상승 효과	△ 통신요금 인하 압박: ARPU 하락
△ B2B 신사업 강화: 신규 매출 확보	△ 컨버전스 경쟁 격화: 기존 ICT 업체와 공방 불가피

<p>△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확대: 신규 매출 및 가입자 충성도 향상</p>	<p>△ 고유영역 붕괴: 음성통화-mVoIP, IPTV-스마트 TV 등 서비스 충돌</p>
---	--

[출처] 통신 3사 2012년 긴축경영 배경은 - 2011.11. 2

2. KT 2012년 경영 방향

1) KT의 성장 저해 요소들

(1) 주수입원인 통신요금 인하 압력 현실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성장한다는 통신업계의 자신감은 과거형이 된 지 오래다. 부지런히 움직여도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통신업계의 현실이다. 통신 3사 올해 사업계획이 공격경영을 포기하고 긴축경영으로 기우는 것은 시계 제로에 가까운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2011년에 통신업계는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놓고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매년 반복되는 요금인하 논란이지만 지난해는 정치권 파상공세까지 더해졌다. 결국 3개 통신사가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기본료를 1000원씩 인하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다. 문제는 올해이다. 총선과 대선 등 대형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또 한 번 외적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고하듯 이미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국회의원이 가입비 면제를 비롯한 통신요금 추가 인하를 요구했다. 규제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업환경 역시 통신사에 불리하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모바일메신저 등 기존 통신사 영역을 잠식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수익성은 낮아지고 있다. 변수는 역시 규제리스크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지면 LTE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스마트폰 혜택을 온 국민이 누려야 한다는 논리로 3G 요금인하를 요구한 것이 LTE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B2B 사업 경쟁력 확보도 관건이다. 통신 3사가 유무선 컨버전스를 앞세우며 정보통신기술(ICT)사업을 강화한 것은 불과 1~2년 전이다. 회선 사업을 넘어 ICT 사업역량을 갖춰왔지는 미지수다. 통신업계가 바라보는 B2B 시장은 블루오션이 아니다.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업체가 이미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다. 통신사 측면에서는 신규 사업이지만 시장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2012년 신서비스와 신사업을 추진하되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감안해 사업 강도와 방식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 밖에 캐쉬카우(Cash Cow)였던 집전화의 붕괴(3년 전 5조 4천억이었던 집전화가 2011년 결산 때 2조 9천억 미처 안 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도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자금 소요에 못 미치는 내부 수익 창출 능력

익히 아시다시피 KT는 주인이 없는 기업이다. 즉 재벌 기업이 아니다. 이는 곧 강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한다. 성장동력을 위해서 KT는 2012년 까지 총 9조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이다. 부동산 매각하고, 매출 올리고, 허리띠 졸라매도 아직 현실은 역부족이다. 자체 수익 창출로는 여러모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부 개혁과제도 종종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민영화가 됐지만 아직 공기업적 요소가 산재하고 특히 조직이 외부와 장벽을 쌓고 교류하지 않는 Silo문화 때문에 복잡하고 느리며 피동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퍼져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개혁과제이다. 주파수 관련 대응과 통계해석 능력의 미숙과 새로운 도약에 필요한 인재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3) 외부 압박 요인 - 특별근로감독과 삼성과의 갈등

고용노동부는 201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KT의 노동인권 문제가 제기된 후속 조치로 2월1일부터 10일간 대대적인 감독에 돌입했다. 이미 작년 3차례 실시된 특감에서 한번도 부당 해고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으나, 계속되는 일부 특정 세력의 민원 때문에 고용부가 이례적으로 4번째 특감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해당 특감은 근로감독관 500여 명이 파견, 전국 KT지사 15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그 동안 KT노동조합의 신 노동운동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왔던 일부 불순의도를 가진 세력의 왜곡 제보에 의존한 편향된 특감이라는 의혹을 일으켰다. 특히, 노동부가 이번 KT 특감의 배경으로 적시한 사안들이 일부 소수세력에 의해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과 일치됨은 물론, 특감이 시작된 후 고용노동부가 감사위원 500명을 투입해 몇몇 노조 임원에게 노조통장과 내역서, 타임오프제에 관련된 서류까지 보여달라고 하는 등, 특감 목적 사항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행위로 구설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하여 KT링커스 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태 의원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고용노동부가 기존 노조를 뒤흔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조 내부의 세부적인 사안까지 요구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의견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KT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특감 대상이 넓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특감은 노노 갈등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기업 길들이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지하듯이 KT는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과 4세대(G) 이통통신 LTE(롱텀에볼루션) 투자 영향으로 지난 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 하락한 1조9573억원을 기록했다.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특감까지 진행되면서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KT는 물론 노동조합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 TV 제조사(삼성)와의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어 난항이 예상된다. KT가 9일 스마트 TV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자, 삼성이 크게 반발함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KT는 인터넷 접속을 막기 전인 오전 8시 경에

협상을 시도했으나 삼성 측에서 “협상할 생각은 없다. 포털 등과 함께 망 중립성포럼을 통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혀 인터넷 접속을 막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삼성과 방통위는 금번 KT의 조치를 망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KT는 이번 조치를 취한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망 과부하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TV는 PC와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품질 트래픽을 장시간 노출시키기 때문에 동영상의 경우 IPTV와 비교해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는 수백 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용량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독점할 경우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는 웹서핑도 힘든 수준인 265배까지 느려질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TV 제조사가 무단으로 KT 통신망을 이용하며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망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KT 노동조합 역시 성명서를 통해 금번 조치를 망 중립성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근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며, 방통위의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균형 잡힌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위한 보완 조치를 시급히 요구했다. 더불어 스마트 TV 제조사는 어물쩍 무임승차할 생각 말고, 정당한 인터넷망 비용을 지불할 것을 엄중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이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에다 방통위도 삼성에 힘을 실는 입장이어서 해당 문제는 KT로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예정이다.

2) KT의 중, 장기 사업방향

(1) 2012년에 추진할 일

이석재 회장 이하 KT 경영진은 변화와 혁신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표현으로 위기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전 직원들의 대변혁이 요구되며, 비용절감 및 자기가치를 높이지 못한다면 KT는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KT경영진은 2012년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방향으로 `비상경영 추진 (임원 기본급 10% 삭감과 5천억 이상의 추가 경비 절감. 단, 연말 목표 달성 시 반납) `Simple, Speedy하게 일하는 방식 `인재양성, 전략 혁신 등의 완성 `그룹 시너지 극대화 : 통신기업에서 컨버전스 기업으로 본격적 전환. `Cloud 컴퓨팅 사업으로 본격화 및 글로벌 KT본격화를 꾀했다. 또한 올해 돌파구를 LTE와 B2B 신사업으로 잡았다. LTE는 하락세인 ARPU를 반등시켜줄 기대주이기 때문이다. 기존 3G 대비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갖춘 LTE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이르면 3분기께 LTE 가입자 1000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4만5000~5만5000원 기본요금제가 주를 이루는 3G 스마트폰 가입자를 6만원 이상 LTE 요금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가입자를 늘리는 무리한 마케팅 공세는 지양한다. B2B 사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오피스, u헬스케어 사업이 주 공략대상이다. 2011년 시범사업 수준에 머문 클라우드 컴퓨팅도 2012년 본격적인 매출 확대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2) 향후 3 년간의 비전

- 그룹매출 40조 기업으로 비상
- 영업이익 2.3조에서 3.5조 이상으로 성장.
- 통신사업 의존도를 60% 이하로 감소.
- 일하는 방식, 인재구성, 매출액 비중 등을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탈바꿈.
- 개인 대신 시스템 의존 기업으로 전환.

3. 노동계 2012 년 사업방향

1) 민주노총 2012 년 총파업 결의

민주노총 6기 김영훈 집행부는 2012 년을 맞아 총파업을 사업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12 년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함께 살자’ 는 슬로건으로 ‘1-10-100(한번에 10 개 법안을 100 일 안에)’ 방식으로 노동악법 폐기와 노동법 재개정 실현 목표를 대의원대회에 제출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31 일 대의원대회에서 “1% 부자만을 위한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고, 99% 노동하는 민중들이 함께 살기 위한 총파업 투쟁” 을 호소한바 있다. 또한 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은 “2012 년 총대선 총파업 승리로 함께 사는 노동세상을 열어가자” 는 총파업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2012 년,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중단 △노동법 전면 재개정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 서민복지, 경제민주화 실현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6 월말에서 7 월 초, 경고 총파업을 진행하고 8 월 말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6 월 개원국회에서부터 10 개 법안에 대한 국회 쟁점화, 강도 높은 시기집중형 경고 총파업으로 각 정당 당론 채택과 법안발의, 8 월 개혁입법을 위한 특별임시국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어 8 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관련법을 포함한 1-10-100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내 투쟁과 총파업, 장외투쟁의 결합을 통해 투쟁동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총파업 및 총대선을 위한 ‘2012 노동자대투쟁 및 총대선 승리투쟁본부’ 와, 50 개 핵심사업장 대표자 회의인 ‘총파업 연석회의’, ‘민중연대 사업단’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6 기 민주노총 임원 보충선거가 개최됐으며, 정용건 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은 특별 결의문으로 ‘총파업 결의문’ 을 채택하고 “승리의 역사를 계승하여 2012 년 다시 한 번 총파업을 조직하자” 며 △ ‘2012 총대선 총파업 승리 투쟁본부’ 와 함께 일사 분란하게 현장을 조직할 것 △총선과 산별 임단투 승리가 총파업 승리의 관건임을 명심하여,

총선과 산별 임단투 승리를 위한 투쟁할 것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노,농,청,학,빈 연대투쟁, 동맹파업을 통해 총파업 승리를 완주할 것 등을 결의했다.

2) 한국노총, 현실정치 본격 개입

민주통합당은 지난 20 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의 정치권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주통합당의 노사 정책이 사실상 노조를 대변하는 목소리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야권 통합과정에서 민주당과 손잡은 한노총에 대한 지분을 인정해준 것이다. 한노총의 영향력이 표출된 대표적인 예는 지난달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이다. 시민선거인단 64 만 명 중 한노총 조직표가 4 분의 1 에 해당하는 17 만 명으로 대표 선출에 막강한 힘을 행사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의 주요 정책들은 이미 친노조 성향을 보이고 있다. 론스타 문제에서 민주통합당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이 같은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강력히 반대하는 금융노조는 한노총 산하단체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지명 후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첫 일성으로 "민주통합당은 절대 막대한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론스타의 먹튀와 국부손실을 초래하는 금융정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의 목소리는 민주통합당의 전략에 그대로 반영됐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지난 27 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주자 크게 반발했다. 이미 정치권 내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내 한노총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 국민노총은 아직 이렇다 할 신년계획은 내세우지 않고, 경총과 함께 노사정 신년모임을 갖는 등 온건노선을 지속할 전망이다.

<참고기사>

1. SERI 2012 년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2. 2012 통신업계 전망 - 조선비즈
3. 통신 3 사 2012 년 긴축경영 배경 - 전자신문